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조 준 희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이정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조 준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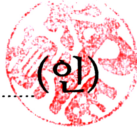
# 인 준 서

조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서수연 (인) 

심사위원 박혜경 (인) 

심사위원 이정훈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하며,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거쳐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사이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성별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SNS 중독 경향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조절된 매개 효과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6
II. 이론적 배경 .....	8
1. 내현적 자기에 .....	8
1) 자기에의 개념 .....	8
2) 내현적 자기에의 개념 .....	13
2. SNS 중독 경향성 .....	15
1) SNS 중독 경향성의 개념 .....	15
2) 내현적 자기에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 .....	17
3) 성별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	18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20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념 .....	20
2) 내현적 자기에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관계 .....	22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 .....	23
4)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24
III. 연구방법 .....	26
1. 연구 대상 및 절차 .....	26
2. 측정도구 .....	27
3. 분석방법 .....	31

IV. 연구결과 .....	32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	32
2. 성별 조절효과 검증 .....	39
3. 매개 효과 검증 .....	40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42
V. 논의 및 제언 .....	46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1.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구성 .....	28
표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구성 .....	29
표3.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구성 .....	30
표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SNS 사용 특성 .....	33
표5.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	35
표6. 성별을 집단변수로 한 독립표본 t-검증 .....	37
표7.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	38
표8. 성별을 조절변수로 한 내현적 자기에의 주효과 검증 .....	40
표9. 회귀분석에 의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 검증 .....	41
표10.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42
표1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44
표12.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45

## 그림 목 차

그림1. 연구 모형 .....	7
그림2. 자기애의 역동적 자기조절 과정 모델 .....	12
그림3.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 .....	41
그림4. 성별로 조절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 모형 .....	4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대학 시절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함과 더불어 예비 사회인으로서 중·고등학생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활동, 폭 넓은 대인관계에 노출되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어디서든 손쉽게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의 대학생은 어느 때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SNS 이용률은 연평균 8%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중 20대의 SNS 이용률이 74.4%로 가장 높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55.1%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SNS 이용자의 67.3%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SNS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그러나 SNS의 활용과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SNS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 사생활 노출,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SNS 중독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오윤경, 2012). SNS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업 성적 저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 저하, 가족들과의 대화단절, 시력저하, 수면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우공선, 강재원, 2011),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자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Echeburúa & Corral, 2009),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사용자들이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흡연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Hofmann, Vohs, & Baumeister, 2012). 이처럼 SNS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SNS 중독 위험에 많은 20대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SNS 중독이 금단과 내성을 포함한 중독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Griffiths, 2005)에서 대학생의 SNS 중독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SNS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기초적인 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을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SNS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Buffardi & Campbell, 2008; Mehdizadeh, 2010; 이경민, 2014 재인용), 개인적 성향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을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SNS의 중독 원인을 SNS의 기능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격 구조와 같은 심리내적인 요인과 연관지어 밝히는 것이 SNS 중독 경향성을 가진 대학생에게 적합한 상담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자기애는 SNS 중독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Andreassen, 2015; Lee & Sung, 2016; Bergman et al., 2011; Ong, Ang, Ho, Lim, Goh, Lee & Chua, 2011). 조성현과 서경현(2013)은 자기애성 성격자의 자기개념이나 자신에 대한 느낌의 불균형 상태가 SNS 과다 사용이나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고, 정구철과 문종호(2015)는 적당한 SNS 사용은 사회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자기애적 성향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면 중독의 특성인 몰입이나 강박적 사용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기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과민함,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함, 부정적 정서, 자기에게 촛점이 과도한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Hendin & Cheek, 1997)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만을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Collins & Stukas, 2008; Meyer & Pilkonis, 2011 ; 박영주,

정남운, 2013).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지에 대해 전전긍긍하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Cooper, 2000). 이처럼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이며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대면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적응하게 되는데, ‘사회 보상 가설’에 의하면 SNS에서의 대인관계 간접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SNS중독 경향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Kuss, Griffiths, & FBPoS, 2012; Lee, Moore, Park, & Park, 2012; Mehdizadeh, 2010; Orr et al., 200; Sherman, 2011; Steinfield, Ellison, & Lampe, 2008; Tazghini & Siedlecki, 2013; Zwicka & Danowski, 2008).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 구조에 해당하며, 성격 구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는 단기간의 개입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기애 성향을 가진 내담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정다영, 정남운, 2009; McWilliams, 2008),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취약성을 숨기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만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다(Colins & Stukas, 2008; Meyer & Pilkonis, 2011).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기제시라 하는데(Leary & Kowalski, 1955),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취약한 자기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인관계전략이다(Morf & Rhodewalt, 2001). 자기제시는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경직되고 실제의 자신과 괴리가 큰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남재, 2004; 하정희, 2011; Leary & Allen, 2011; Schlenker & Leary, 19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매개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부적응적 자기제시의 한 갈래로서, 자기제시동기가 극으로 치달아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성향을 말한다(이동귀, 서해나,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나 불완전함을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자신에 대한 완벽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으로 Hewitt에 의해 최초로 정의된 개념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므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숨기려는 대인관계적 특성을 보인다(하정희, 2011).

개인의 성격을 대인관계적 측면이 반영된 표현적 측면(expressive aspects)과 특성적 측면인 내용적 측면(content-related aspects)으로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 후(Buss & Finn, 1987; Paulhus & Martin, 1987), 개인의 정적인 측면인 특성적 측면만으로는 개인의 심리내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점이 대두되었다(Wachtel, 1994). 즉, 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격인 표현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자기에 과도하게 몰입된 성격의 특성적 측면이라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관계적인 표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함께 고려한다면, SNS 중독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내적 모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강한 사회적 욕구가 있고(최상진, 김기범, 2000) 한국의 문화에서 체면을 중요시하는 측면(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 1999)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 대학생들에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일 수 있다.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취약한 자기상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Kohut, 1971)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게 된다(Mof & Rhodewalt, 2001). 외부의 피드백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인정받고자 할수록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제시하고자 몰두하게 되므로(Bruch, 1973),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졌으리라 추측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신의 완벽함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SNS 중독 경향성

이 높고(박소현, 2016), 대인불안과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이 SNS를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강지혜, 2014). SNS는 선택적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축소하고 자신의 강점만을 부각시켜 타인에게 실제 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이은주, 2011)라는 점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SNS에서는 현실세계에서보다 자신을 과시하고 관심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김선미, 서경현, 2015), 실제 자신을 노출하기를 두려워하고 칭찬과 관심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SNS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수단(김선미, 서경현, 2015)이기도 하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SNS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어(김인섭, 문종범, 2012; Kwon, Wen, 2010; 홍지은, 강민주, 2013; 신호경, 신지명, 이호, 2011; 김소연, 2013), 타인에게 완벽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경향은 SNS의 사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토대로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향을 높이고, 높아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SNS 중독 경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SNS 중독적 사용 경향을 갖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있는 SNS 중독적 사용자들의 치료적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치료적 전략을 세우는 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및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경로모형을 사용한 모형 간 비교를 통하여 최적 모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고(하정희, 2011), 여성이 남성보다 더 SNS를 많이 사용한

다는 SNS의 이용 실태 조사(여성가족부, 2012)에 근거해 성별에 따른 집단효과가 있는지도 탐색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자기애 성격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들에 근거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성별로 조절된 부분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내현적 자기애는 SNS 중독 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내현적 자기애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중독 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사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설 2-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문제 3.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설 3-1)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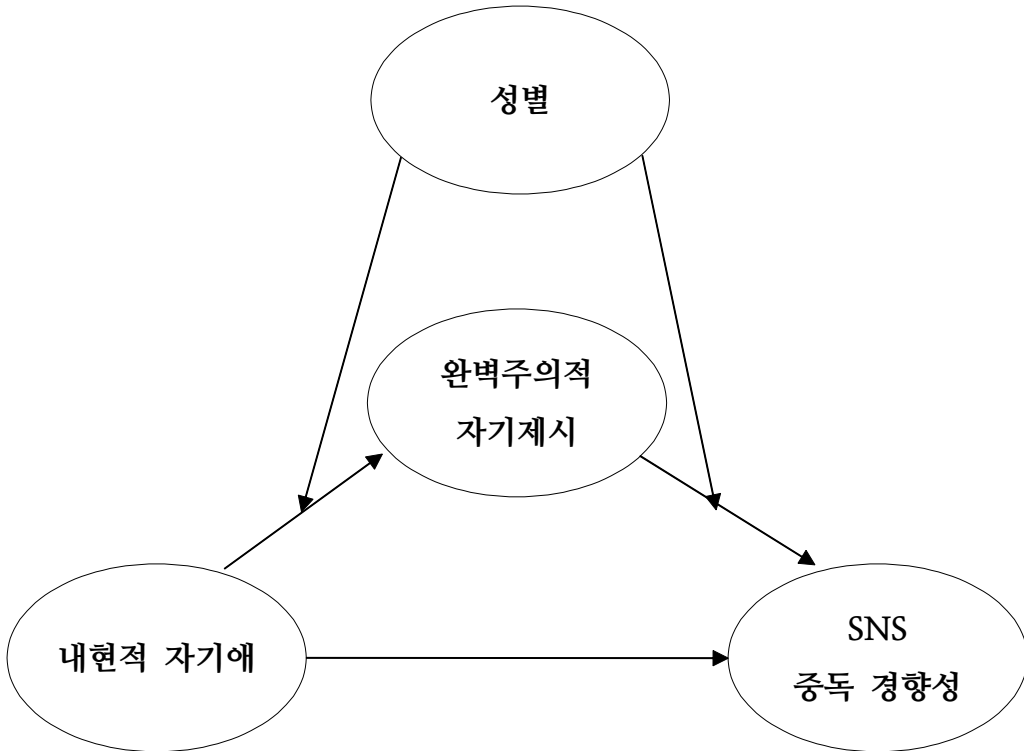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내현적 자기애

#### 1) 자기애의 개념

자기애(narcissism)라는 용어는 Ellis에 의하여 처음 심리학에 대두되었다. 그는 자기성애(auto-erotism)을 설명하면서 성적인 감정을 상실한 채 거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경향을 고대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Narcissus)에 빗대어 Narcissus-like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제순하, 2010, 재인용). 이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Nacke가 Ellis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독일에서 narcissismus라는 용어로 자기애가 소개되었다. 이후 자기애는 Freud와 Kernberg, Kohut 등의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인간의 성격과 정신 역동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Millon의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역동적 자기 조절 모델(Morf & Rhodewalt, 2001)의 관점에서 자기애가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애는 전통적인 심리학의 영역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으나, 현대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면서 현대인의 주요한 성격적 요인으로서 자기애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Freud는 자기애를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 즉 자기자신에 대한 리비도의 몰입으로 정의하고 자기애를 일차적 자기애(primary narcissism)과 이차적 자기애(secondary narcissism)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자기애는 자기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 의해 배고픔 등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서 발달한다. 이후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과 외부환경을 구분하게 되고, 리비도가 외부 대상에게 옮겨가 대

상애(object-love)가 발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부적절한 양육이나 다양한 장애요소로 대상애를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도를 자아나 자아 내의 내면 대상에게 철회하게 되는데, Freud는 이를 ‘이차적 자기애’로 보았다. 이때에 일차적 자기애에 고착되거나 퇴행하게 되는 상태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이며, 이는 신경증적 자기애로서 병리적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Freud(1914, 1953)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다섯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는 자기사랑, 자기존경, 자기 과대화와 같은 자기애에 대한 태도, 둘째는 사랑의 상실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자존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취약성, 셋째, 과대망상, 이상화, 부인, 투사, 분리(splitting)와 같은 방어적 지향성이다. 넷째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자기충분적 완벽함에 대한 추구, 다섯째는 자기과시적이고 특별대우와 의무의 면제를 기대하는 특권 의식이나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타인의 비판을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이를 참지 못하는 대인관계 특징이다(김은혜, 2009, 재인용).

Freud는 일차적 자기애의 경우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거쳐가는 필수적 단계로 개념화한데 반하여, Kernberg(1975)는 자기애를 경계선적 성격의 하위범주로서 병리적인 성격 구조로 개념화하였다. Kernberg는 자기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있으면서, 웅대한 내용의 공상을 잘하며, 지혜와 권력,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면서도 치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만성적으로 불확실감과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자기애적 모순(narcissistic paradox)을 보인다고 하였다. Kernberg는 자기애가 내적으로 병리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자기애의 원인이 어린아이가 양육자의 충분한 관심과 공감을 받지 못하고 냉정하거나 애정결핍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겪는 좌절감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Kernberg는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자기 가치를 방어하고 보상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즉, 애정욕구의 좌절을 겪은 아이는

양육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과장해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자기상을 꾸며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애적 성격으로 고착화된다고 하였다.

Kohut(1971; 윤정혜, 2009, 재인용)는 자기애를 정상적 발달 과정을 거치는 리비도가 타인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 단계에 정지된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 자기 발달 단계에서는 외부 세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공생 단계에서 느꼈던 전능감에서 비롯한 ‘과대자기(grandiose self)’와 ‘이상화된 부모원상(idealized parent image)’이라는 자기애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부모가 아동의 자기애적 욕구에 공감하면서도 적당한 수준의 좌절을 제공할 때 자기애적 체계는 성숙하게 변형되어 ‘응집적인 자기(cohesive self)’로 통합되게 된다. 반면 이러한 특별한 양육적 반응을 얻지 못한 경우, 응집적인 자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애적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기애가 발달하는 단계에서 아동에게 칭찬을 비롯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ohut(1971)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 유지와 조절에 결함이 있고 취약한 자기에 대한 자각을 함으로써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통합되지 못한 취약한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조각조각 쪼개질 것 같은 파편화(fragmentation)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는 불안감으로 나타난다(Muslin, 1985). 자기애 성향자들은 내적 자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존재를 끊임없이 외부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확인하고자 하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과도한 분노 등 부적절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통제되지 않는 강력한 자기애적 분노로 타인을 공격하려는 경향, 수동적인 성향, 자신이 진짜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부적절함과 공허함, 강한 자의식과 수치심 등을 특성으로 갖게 된다(장효진, 2012, 재인용).

Millon(1996)은 사회학습이론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가 지속될 때,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과대평가를 웅대한 자기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애적 성향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즉, 부모가 아동에게 지나친 자기 가치

감과 특권의식을 부여했을 때, 이러한 부모의 평가를 아이가 내면화하게 되고 과장된 자기상이 외부 현실에서는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을 때 자기에 발생하게 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외부의 확인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핵심으로 한 성격 구조를 자기에적 성격으로 개념화하고(McWilliams, 1994),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은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자 바람직한 자기상을 형성하여 자기에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자기조절 과정을 갖는다는 자기에의 역동적 자기조절 과정 모델(The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of narcissism)이 제안되었다(Morf & Rhodewalt, 2001). 자기에 성향자들이 자신의 취약한 자기상을 감추고자 하는 방어적 측면에서 과장된 자기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성격 및 사회심리학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김효주, 2010; Gregg & Sedikides, 2010; Jordan, Spencer, Zanna, Hoshino-Browne & Correll, 2003). 자기에의 자기옹대성은 취약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자기에 성향자들이 외부의 지지와 인정을 통해 자기 가치감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외부적 확인을 통해서 자기에자들은 자신이 불충분하고 취약하다는 걱정을 덜게 되기 때문에,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매달리게 된다. Morf와 Rhodewalt(2001)는 이러한 자기조절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에 대해 작업하는 상태(on-line self-construction)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자기에의 역동적 자기조절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기에의 역동적 자기조절 과정 모델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세 개의 자기에적 자기체계(narcissistic self-system)를 가정하는데(Rhodewalt & Sorrow, 2003), 이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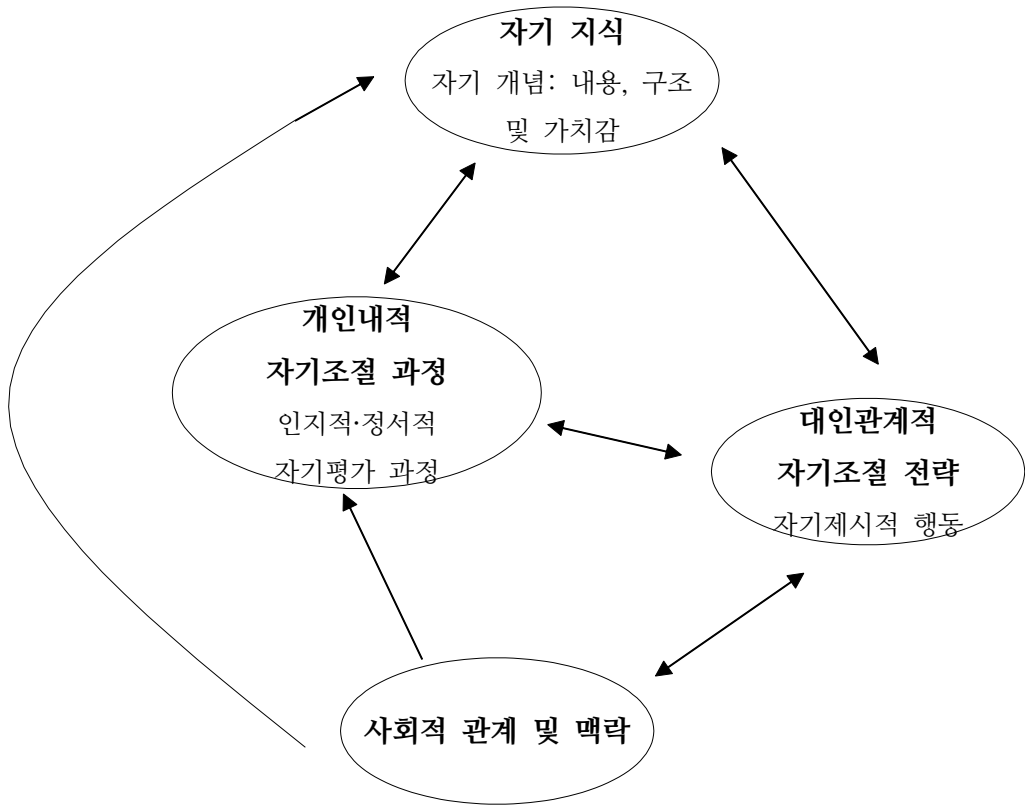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애의 역동적 자기조절 과정 모델  
(Morf & Rhodewalt, 2001; Rhodewalt & Sorrow, 2003)

자기애적 자기 체계의 세 가지 체계 중 첫째로, ‘자기 지식(self-knowledge)’은 이상적 자기, 실제적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자기 개념의 내용, 구조와 안정성, 자존감의 균형, 가치감을 포함한다. 두번째로, ‘개인내적 자기조절 과정 (intrapersonal self-regulatory processes)’은 행동을 동기화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자기 평가적 과정으로, 자기에 관련된 긍정적 정보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편향적으로 사회적 피드백을 해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인관계적 자기조절 전략(interpersonal self-regulatory strategies)’은 타인이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조종 책략과 자신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피드백을 형성하고자 하는 자기제시행동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체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에 성향자들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고양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자기애적 조절 전략에서 Tracy와 동료들은 자기애자들이 부정적 자기 표상은 암묵적으로 간직하면서 긍정적이고 명시적인 자기표상을 유지하고 팽창시킴으로써 부정적 경험을 부정하고 긍정적 경험만을 강조하게 된다고 하였다(Tracy, Cheng, Robins & Trzesniewski, 2009; Tracy, Cheng, Martens & Robins, 2011). 상술한 것과 같이,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대인관계 자기조절 전략 중 하나인 자기제시를 사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향으로 드러난다는 연구는, 가상 현실에서의 사회적 관계 지향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SNS 중독 경향성이 역기능적 자기제시의 매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 2)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

자기애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기애가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 제 3판(DSM-Ⅲ)에 성격장애의 하위 분류로 포함되면서(APA, 1980), 초기의 연구들에서 자기애는 병리적 성격 결함으로 여겨졌다.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체계인 DSM-5(APA, 2013)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기준을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자각, 착취적 대인관계, 특권의식, 자신에 대한 지나친 찬사 요구, 거만함 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기애와 관련된 경험 연구들은 자기과시 성향을 비롯한 공격적이고 외현적인 특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이 부정적인 요소를 가짐과 동시에 긍정적 요인도 있는 양면적 성격임이 드러나면서,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지원, 장은영, 2011).

Wink(1991)는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간 상호 상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요인분석했을 때 ‘취약성(vulnerability)-민감성(sensibility)’과 ‘웅대성(grandiosity)-자기과시(exhibitionism)’의 두 요인이 도출된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자기애를 임상적으로 발현하는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것이 많은 임상가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endin & Cheek,

1997; Mullins & Kopelman, 1988; Rathvon& Holmstrom, 1996; Wink, 1991; 강선희, 정남운, 2002 재인용). Akhtar와 Thomson(1982)는 여러 문헌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애를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기준 및 이상, 사랑과 성, 인지적 양식의 여섯 가지 기능 영역으로 나누고, 여섯 가지 기능 영역의 차이를 바탕으로 자기애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이문선, 이동훈, 2014 재인용)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는 과장된 자기지각이나 자신의 웅대성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 깊숙이 자기애의 역동성과 기제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외현적 자기애자의 경우 자신이 특별하다 생각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과도한 칭찬을 요구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자는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며 타인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제현채, 김정규, 2014).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겉으로는 우울 또는 불안한 것처럼 보이며 과민하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는 거대자기 환상과 자만심, 자기 방종 등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성을 공유하지만, 현상학적으로 상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위축되어 있어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구현경, 김종남, 2014).

이처럼 두 가지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심리적 역동을 가지면서도 이처럼 다른 현상학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손상된 자기표상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Cooper, 2000). 외현적 자기애자들이 웅대한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 고양(self-enhance) 전략을 사용하는데 반해,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취약한 자기상을 상처입히지 않고자 하는 자기 보호(self-protection) 전략을 사용한다(김은혜, 2009). 인지적 측면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내부 귀인하여 자기고양을 하는 경향이 있고,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부정적 사건을 외부귀인을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나 외부로 귀인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박

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이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외현적 자기애자들에 비하여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Lasch(1979)는 현대 미국 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현대인의 보편적인 특성이 되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현대인의 자기애는 그 수단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나르시시즘’이라고도 규정되고 있다(김민정, 2011). 김민정(2011)은 그의 연구에서 현대인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착이 강하면서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데, 이러한 자기중심적이면서 타인의존적인 현대인의 나르시시즘 성향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소통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온라인 문화가 발달한 국내에서, 자기애적 성격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현대인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자로 진단된 임상군에 주목하기보다는, 비임상군이면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임상 장면보다는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에 대한 개입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SNS 중독 경향성

### 1) SNS 중독 경향성의 개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지인과의 인간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된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대표적

인 SNS로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네이버 밴드(Band), 카카오토리(Kakao story) 등이 있다. Ellison(2007)은 SNS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필’이고, 두번째는 글이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이다. 세번째 요인은 자신이 노출한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확인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코멘트’이다. SNS의 즉각성은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코멘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SNS의 중독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사용자가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흡연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Hofmann, Vohs, & Baumeister, 2012).

SNS 중독 경향성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져있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는 SNS의 중독 경향성의 개념을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연관지어 추론하고 있다(정구철, 문종호, 2015; 정소영, 김종남, 2014; 이경민, 2014). SNS 중독은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 중 사이버 관계 중독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Ellison, 2007). 사이버 관계 중독이란 현실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관계욕구를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로 충족하고자 온라인 채팅 등의 웹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는 중독 현상을 말한다(Young, 1998). 그러나 SNS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되어 주로 온라인 채팅을 매개로 발생하는 사이버 관계 중독과는 독립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 SNS의 과도한 사용을 SNS중독, SNS 중독적 성향, SNS 중독 경향성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윤명숙, 박완경, 2014). 국내에서는 SNS 중독 경향성이라는 용어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갖는 여러 중독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독으로 규정할만한 근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강지혜, 2014). 정소영, 김종남(2014)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SNS 중독 경향성을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 및 내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신미경(2016) 또한 SNS 과다 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을 비롯한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초래하여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 지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SNS 중독 경향성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정의를 사용하여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내현적 자기에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

자기애는 SNS 중독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인으로, 자기애와 SNS 중독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Andreassen, 2015; Bergman et al., 2011; Ong et al., 2011). 자기애 성향자들은 대인관계 상황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서 나타내 보이는데 쾌감을 느끼므로 SNS 매체 사용을 매력적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Kuss & Griffiths, 2011; 정병완, 홍혜영, 2015 재인용; 이경민, 2014). 최보은(2009)은 가상의 세계에서 인터넷 중독자는 실제보다 인터넷에서 자기가 더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더욱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는데, 인터넷이 제공하는 이러한 자아도취적인 경험이 나르시즘적 특징을 가지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더 중독되게 만든다고 하였다. 높은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을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SNS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Buffardi & Campbell, 2008; Mehdizadeh, 2010; 이경민, 2014에서 재인용).

특히, 내현적 자기애 경향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세계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구철, 문종호, 2015).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Akhtar & Thomson(1982)가 정리한 자

기애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을 주요 임상적 특징으로 공유하지만, ‘목표불안정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을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한 특성으로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면서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조다현, 2014). 이 때,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자기애적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보상적으로 충족하고자 하게 된다(이계정, 정남운, 2007). 손정선(2010)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인지적 왜곡이 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았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일상적 대인관계 상황보다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정병완, 홍혜영, 2015) SNS 중독 경향성을 보일 소지가 크다. 이정민(2014)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직접적인 사회상황보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대인관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SNS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선행 경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SNS 중독 경향의 예측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관련성이 입증되었다(조성현, 서경현, 2013; 정구철, 문종호, 2015; 이정민, 2014). 조성현, 서경현(2013)은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특히 하위 요인인 과민 취약성, 소심함과 자신감 부족, 착취 및 자기중심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 3) 성별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Young(1999)이 인터넷 중독을 다섯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별한 이래로,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의 하위 영역인 사이버-관계 중독(온라인 관계에 대한 중독)의 다른 현상학적 모습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사이버-관계 중독은 온라인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실제 생활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관계

들을 인터넷 상의 친구로 대치하려고 드는 것으로 설명되며, 국내에서는 하지현과 전미유(2012)가 인터넷 중독 임상 증상을 분류하면서 인터넷 동호회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관계집착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상호(2013)는 SNS중독을 사이버 중독의 일종인 ‘관계집착형 SNS 중독’으로 보았고, 정소영, 김종남(2014)은 SNS 중독을 관계집착형 및 사이버-관계중독형과 그 중독적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지향 중독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ier(2000)는 여성에게 인터넷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은 SNS, 이메일, 온라인 쇼핑 위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 검색, 온라인 게임, 음란물 이용으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남성과 이용 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Weiser, 2000; Odell, Korgen, K, Schumacher, & Delucchi, 2000). SNS 사용과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되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 사용자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으며(이성철, 최태영, 우정민, 김지현, 서민재, 곽상규, 이종훈, 2014), 여성이 남성보다 스마트폰의 사용 비중에서 카카오톡 등 SNS 사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박용민, 2011). 박용민(2011)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남성은 정보 획득과 활용을 꼽았으나, 여성은 폭넓은 인맥형성으로 응답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중독 경향성에 여성이 더 취약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SNS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능을 사용이 남성에게보다 여성에게서 높음을 고려하면, SNS의 중독 경향성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경험 연구들에서도 SNS중독 경향성에서 성차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소영, 김종남(2014)은 SNS 중독 경향성에서 여자가 남자가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윤명숙, 박완경(2014)의 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SNS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지혜(2013)는 여자 중학생이 남자 중학생에 비하여 SNS 중독 경향

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기제시 성향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념

자기제시(self-presentation)는 Leary & Kowalski(1990)가 사회불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자기제시 모형(self-presentation model)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크게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제시 모형에서 자기제시동기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상을 통제하려는 동기’이고, 자기제시 기대는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로 자기제시 효능감이라고도 한다(Schlenker & Leary, 1982).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높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chlenker & Weigold, 1992).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믿을 때 자존감 및 자기가치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험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이동귀, 서해나, 2010). 그러나 Leary & Kowalski(1990)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으면서 자기제시 기대가 낮은 경우에 그 차이의 함수에 의하여 사회불안이 유발된다고 하였고, 높은 자기제시 동기 수준이 사회불안, 우울,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러 경험 연구들에서 밝혀졌다(김남재, 2004; 박승순, 2014; 유하나, 박기환, 2013; 하정희, 송수민, 정은선, 2010).

높은 자기제시 동기가 극으로 치달아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려는 성향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이라 한다(Hewitt,

Flett, Sherry, Hablke, Parkin, Lam, McMurtry, Ediger, Fairlie, & Stein,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자들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 불완전하게 보인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숨기려는 특성을 보인다(하정희, 2011).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완벽해지려는 성향인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를 넘어서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관한 욕구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이라고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있어(이동귀, 서해나, 2010) 타인에게 기만적 자기제시를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하정희, 2011), 일반적인 자기표현이나 개방과는 차이가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Hewitt, Blasberg, Flett, Sherry, Medjuck, Caelian., 2007; Hewitt et al, 2003). 하위 요인으로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Promotion, PSP)’, ‘불완전함 은폐-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불완전함 은폐-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이 있다. 첫번째 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드러내 타인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호의적인 평판을 받기 위해서 결점 없이 완벽한 자신을 보이고 이를 알리고자 하는 특성이다. 두번째로, ‘불완전함 은폐-행동적’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는 경향이다. 이는 자신의 불완점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실수하거나 결함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요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완벽한 인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효능감의 부족과 연관이 있다(하정희, 2011). 세번째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타인 앞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해보이는 자신의 측면을 은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거나 의존해야 할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다(하정희, 201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특성적 완벽주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성

격장애 등의 개인내적인 문제, 사회불안 등의 대인간 문제들을 설명해주고 있다(Hewitt et al., 2003). 국내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지각하고 오래 반추하는 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낮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실수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는 점(이동귀, 서해나, 2010)이 밝혀진 바 있다.

## 2)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여러 심리적 문제들을 설명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동귀, 서해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극단적 자기제시 경향성임과 동시에 특성적 완벽주의가 포함하지 못하는 대인관계적 면에서의 완벽추구 경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자기제시와 완벽주의,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관계를 추론해보고자 하였다.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관심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확인받고 취약한 자기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으로 자기제시행동을 보인다는 자기애의 역동적 자기조절 과정 모델(Morf & Rhodewalt, 2001)에서 자기애 성향과 자기제시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애 관련된 경험 연구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애가 자신이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관리하고자 과도하게 노력하는 부적응적 자기제시(maladaptive self-presentation)와 갖는 연관성을 다루고 있다(이예지, 2017).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제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취약한 자기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에게 비판받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려고 하여 자기제시와 관련이 높을 것

으로 생각된다(Jones & Tager, 1972; Leary et al., 1986). 김민선과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제시동기와 정적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여러 치료 이론 및 경험 연구에서 알려졌다(이연주, 박준호, 2016; 이문선, 이동훈, 2014; 김성주, 이영순, 2015; 박영주, 정남운, 2013).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얻게 되는 불만족감, 공허감, 만성적인 불안감 등은 자기애 성향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이원희, 안창일, 2005).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염려하며 불안해지기 쉬운데(Flett, Hewitt, Endler, & Tassone, 1994),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내현적 자기애자가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이다. 또, 평가 민감성 및 불안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적 연관이 있음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Sherry, Hewitt, Flett, Lee-Baggley, & Hall, 2007).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갖는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

SNS에 글을 올리며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자기과시 때문이라는 김종현(2015)의 연구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외부에서 확인받으려는 욕구가 SNS에서의 활동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SNS를 사용한 소통은 시각적, 언어적 단서를 상대적으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상호작용 상황에서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김형수, 2014) 때문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에게 선호될 수 있다.

Kuss와 Friffiths(2011)는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이를 통해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을 얻고자 SNS를 과다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Casele, Firavanti, Flett. & Hewitt(2015)은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의 하위요인인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과 인터넷의 문제적 사용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구철모 외(2011)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SNS 사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동기로 파악되었고, 김경은(2013)의 연구에서는 자신을 과장해 드러내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위 등을 자랑하기 위해 카카오토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2013)은 SNS의 즉각성이 중독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타인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SNS에서 즉각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이러한 보상이 SNS 사용을 강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SNS 중독 경향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기은폐가 있다. 자기은폐는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으로(박미란, 이지연, 2008) 이상적 자기제시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함께 부적응적 자기제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이예지(2017)는 자기은폐를 빈번히 사용하면 외로움과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관계 욕구를 SNS에 의존해 충족하려고 함으로써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구성요인으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포함됨을 고려할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또한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최근의 경험 연구에서 안주희(2015)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정적 관련이 있으며,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가 매개함을 밝혔다.

#### 4)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herry, Hewitt, Besser, Flett & Klein(2006)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성차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관한 연구들은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채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자기제시적 기준이 다르고(Pliner, Chaiken, 1990; Leary, 1995),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에게 자기제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연구(Elliott, 1982; Besser, Flett, Hewitt, 2010, 재인용)는 남자보다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특성이 더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한 하정희(2011)는 대학생이 성인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차원이 높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차원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또, 이새씩(2016)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대학생들에게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한가희, 2016; 김다정, 2014) 또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관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성차에 관련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차이를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자기애적 성격 성향의 발현 시기가 초기 성인기(이문선, 이동훈, 2014)이고 SNS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연령 역시 20대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남녀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타인에게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주려는 경향성은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고(이동귀, 서해나, 2010),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인 초기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권석만, 1995)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대학생을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쳤으며(IRB 승인번호: SSWUIRB 2017-010), 전국의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윤리에 따라 모든 연구 참가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였다.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설문 도중 언제라도 참가 동의를 철회하고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설문이 종료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총 수거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되거나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87부를 제외한 총 31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khtar와 Thomson(1982)가 정리한 자기에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인정 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9문항), ‘착취 및 자기중심성’ (9문항), ‘목표불안정성’ (9문항), ‘과민 및 취약성’ (10문항), ‘소심 및 자신감 부족’ (8문항)의 5개 요인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 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 등이 있다. ‘착취 및 자기중심성’에는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목표불안정성’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문항이 포함된다. ‘과민 및 취약성’에는 ‘비판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가, ‘소심 및 자신감 부족’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편이다’ 등이 있다. 척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척도가 높은 것이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0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1이었다.

표 1.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
착취/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
소심/자신감 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
전체		45

\*역채점 문항

##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Hewitt과 Flett(2003)가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PSPS)를 하정희(2011)가 수정·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를 사용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8문항), ‘불완전함 은폐-행동적(NDP)’ (5문항),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 (6문항)의 3개 하위요인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등이 있으며,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에는 ‘내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내 문제를 늘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것이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6이었다.

표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1, 8, 9, 12, 15, 16, 18, 19	8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4, 6, 7, 10*, 17	5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2, 3, 5, 11, 13, 14	6
전체		19

\*역채점 문항

### 3)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베르겐 페이스북 중독 척도 (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를 수정하고 기존 스마트폰 중독 척도 및 페이스북 척도 일부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7문항), ‘몰입 및 내성’ (7문항), ‘부정정서의 회피’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5문항)의 4개 하위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의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SNS 사용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SNS로 인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몰입 및 내성’에는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SNS를 하고 싶은 충동

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등이 있으며 ‘부정정서의 회피’에는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는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SNS를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의 문항들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정소영과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였다.

표 3.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4, 10, 14, 17, 20, 22, 24	7
몰입 및 내성	1, 5, 9*, 15, 18, 21, 23	7
부정 정서의 회피	3, 8, 11, 16, 19	5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2, 6, 7, 12, 13	5
전체		24

\*역채점 문항

###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기술적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각 변인들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uller 등(2005)이 제안한 통합분석모형을 기반으로 James와 Brett(1984)의 위계적 회귀분석 전략을 통합한 3단계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방법(정선호, 서동기, 2016)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SPSS 20.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절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조절변수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델 1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조절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 4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58을 사용하여, 조절변수와 매개변수가 투입된 조건화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2013)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조건부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통계치를 반복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모수의 분포를 경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Shrout & Bolger, 2002).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N=313$ )으로부터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SNS 사용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SNS 사용 특성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09세( $SD=1.86$ )이었다. 연구 참가자 중 남자는 158명(50.5%), 여자 155명(49.5%)이었다. 대상자 중 1학년은 45명(14.4%), 2학년은 97명(31.0%), 3학년은 105명(33.5%), 4학년은 63명(20.1%)이었으며 휴학생 및 추가 학기생은 3명(1.0%)이었다. 전공 분포는 공학계열이 117명(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과학 74명(23.6%), 인문과학 59명(18.8%), 예체능 32명(10.2%) 순이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SNS 사용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구 참가자가 하루에 SNS에 접속하는 횟수는 평균 11.49회( $SD=16.64$ ), 하루 당 SNS 이용 시간은 69.83분( $SD=71.45$ )이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56.5%)이었고,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28.4%), 트위터(6.1%), 카카오톡(2.6%), 기타(6.3%) 순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이 SNS를 사용하는 이유로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빨리 알 수 있어서’(20.1%), ‘친구나 지인들의 근황을 쉽게 알고 싶어서’(20.0%), ‘사회적인 이슈를 알기 편해서’(17.0%), ‘친구 및 지인과 연락, 인맥 관리를 하려고’(12.2%), ‘개인 관심사와 정보를 공유하려고’(10.5%)를 꼽았다.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SNS 사용 특성 (N=313)

		N	%
성별	남자	158	50.5
	여자	155	49.5
학년	1학년	45	14.4
	2학년	97	31.0
	3학년	105	33.5
	4학년	63	20.1
	기타	3	1.0
전공	공학	117	37.4
	사회과학	74	23.6
	인문과학	59	18.8
	예체능	32	10.2
	기타	31	10
사용하는 SNS	페이스북	258	56.5
	인스타그램	130	28.4
	트위터	28	6.1
	카카오토티	12	2.6
	기타	29	6.3
사용 이유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의 빠른 획득	186	20.1
	친구나 지인의 근황 확인	185	20.0
	사회적 이슈 확인	157	17.0
	친구 및 지인과의 연락, 인맥 관리	113	12.2
	개인의 관심사와 정보 공유	97	10.5
	일상 생활 기록	58	6.3
	좋아요 등 표현 용이	48	5.2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서	46	5.0
	기타	21	2.3

## 2)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p < .05$ ). SNS 중독 경향성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 $r = .40, p < .01$ )이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r = .20, p < .01$ )와도 관련이 있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이 높았으며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성향 또한 높았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구성 요인인 목표불안정( $r = .15, p < .01$ ), 거대자기환상( $r = .38, p < .01$ ), 자기중심성( $r = .33, p < .01$ ), 과민취약성( $r = .41, p < .01$ ), 소심( $r = .15, p < .01$ ) 모두 SNS 중독 경향성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더 높은 SNS 중독 경향을 보였다.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r = .29, p < .01$ )만이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r = .07, p > .05$ )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r = .03, p > .05$ )은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이후 매개 분석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구성 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만을 사용하였다.

## 3)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에 성차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여자는 남자에 비해 높은 내현적 자기애 ( $t(310.92) = 2.34, p < .05$ )와 SNS 중독 경향성 ( $t(2.03) = 2.03, p < .05$ )을 보고하였다.

표 5.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의 상관계수 및 각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N=313)

	1	1a	1b	1c	1d	1e	2	2a	2b	2c	3	3a	3b	3c	4d
1. 내현적 자기애	1														
a. 목표불안정	.69**	1													
b. 거대자기환상	.68**	.16**	1												
c. 자기중심성	.68**	.27**	.44**	1											
d. 과민취약성	.88**	.46**	.61**	.41**	1										
e. 소심	.62**	.35**	.25**	.28**	.56**	1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5**	.10	.54**	.23**	.50**	.30**	1								
a.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38**	-.02	.58**	.28**	.41**	.17**	.86*	1							
b. 은폐노력-행동적	.38**	.18**	.46**	.02	.45**	.25**	.67**	.40**	1						
c. 은폐노력-언어적	.25**	.12**	.10	.16**	.25**	.30**	.68**	.38**	.21**	1					
3. SNS 중독 경향성	.40**	.15**	.38**	.33**	.41**	.15**	.20**	.29**	.07	.03	1				
a. 조절실패 및 일상장애	.33**	.14**	.31**	.27**	.33**	.09**	.13*	.21**	.06**	-.03	.88**	1			
b. 몰입 및 내성	.34**	.12**	.34**	.28**	.36**	.09	.18**	.27**	.04	.03	.93**	.79**	1		
c. 부정적서 회피	.38**	.11	.37**	.29**	.40**	.20**	.24**	.29**	.13**	.06	.84**	.60**	.68**	1	
d. 가상세계지향 및 금단	.37**	.17**	.32**	.32**	.34**	.16**	.19**	.28**	-.01	.09	.85**	.61**	.72**	.74**	1
평균	2.71	2.70	3.07	2.27	2.62	2.90	4.26	3.92	5.22	3.93	1.83	1.84	1.92	1.90	1.68
표준편차	.45	.82	.59	.57	.66	.43	.72	.98	.98	.89	.51	.58	.57	.63	.54
왜 도	-.17	-.03	-.23	.10	.01	-.11	-.03	-.25	-.74	-.03	.23	.33	.27	.28	.46
첨 도	.09	-.55	.18	-.19	-.21	.21	.24	.21	.21	.68	-.30	-.42	-.34	-.59	-.61

\*  $p < .05$ , \*\*  $p < .01$ .

보다 구체적으로, 여자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구성 요인인 거대자기환상 ( $t(310.52)=2.62, p<.01$ )과 과민취약성 ( $t(311.00)=3.33, p<.01$ ) 또한 남자에 비하여 높았다. 또, SNS 중독 경향성의 하위 구성 요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 $t(308.00)=2.26, p<.05$ )와 부정정서 회피 ( $t(311)=2.74, p<.01$ )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p>.01$ ). 단, 하위 구성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t(311)=4.24, p<.01$ .)

성별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여자 집단에서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높은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 $r=.36, p<.01$ )였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r=.23, p<.01$ )도 관련이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으로는 과민취약성( $r=.40, p<.01$ )이 가장 상관이 높았고 다음은 거대자기환상( $r=.33, p<.01$ ), 자기중심성( $r=.32, p<.01$ ) 순이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r=.29, p<.01$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자 집단을 살펴보면,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높은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 $r=.41, p<.01$ )였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r=.17, p<.05$ )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은 모두 SNS 중독 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거대자기환상( $r=.40, p<.01$ )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과민취약성( $r=.39, p<.01$ ), 자기중심성( $r=.33, p<.01$ ), 목표불안정( $r=.17, p<.05$ )과 소심( $r=.17, p<.05$ ) 순이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r=.30, p<.01$ )만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6. 성별을 집단변수로 한 독립표본 *t*-검증 (N=313)

	여자(N=155)	남자(N=158)	<i>t</i>
	<i>M</i> ( <i>SD</i> )	<i>M</i> ( <i>SD</i> )	
내현적 자기애	2.77 (.44)	2.65 (.45)	2.34*
목표불안정	2.74 (.85)	2.65 (.78)	.94
거대자기환상	3.16 (.57)	2.98 (.60)	2.62**
자기중심성	2.30 (.55)	2.25 (.59)	.68
과민취약성	2.74 (.65)	2.50 (.66)	3.33**
소심	2.91 (.42)	2.90 (.45)	.2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31 (.70)	4.22 (.74)	1.14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3.94 (.95)	3.90 (1.00)	.35
은폐노력-행동적	5.45 (.83)	4.99 (1.07)	4.24**
은폐노력-언어적	3.85 (.93)	4.00 (.84)	-1.41
SNS 중독 경향성	1.90 (.50)	1.78 (.52)	2.03*
조절실패 및 일상장애	1.91 (.60)	1.76 (.56)	2.26*
몰입 및 내성	1.97 (.56)	1.86 (.58)	1.79
부정정서 회피	1.99 (.64)	1.80 (.60)	2.74**
가상세계지향 및 금단	1.67 (.53)	1.68 (.56)	-.06

\**p*<.05, \*\**p*<.01

표 7.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의 상관계수 및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 N=313)

	1	1a	1b	1c	1d	1e	2	2a	2b	2c	3	3a	3b	3c	3d
1. 내현적 자기애	1	.66	.67	.69	.88	.63	.44	.34	.39	.27	.41	.37	.35	.40	.40
a. 목표불안정	.72	1	.12	.26	.46	.34	.05	-.11	.20	.12	.17	.18	.11	.15	.18
b. 거대자기환상	.67	.20	1	.44	.61	.25	.55	.59	.42	.15	.40	.34	.36	.40	.39
c. 자기중심성	.67	.28	.44	1	.49	.30	.22	.26	.03	.16	.33	.30	.29	.30	.32
d. 과민취약성	.87	.47	.59	.50	1	.56	.52	.41	.48	.28	.39	.34	.34	.38	.34
e. 소심	.63	.37	.26	.26	.58	1	.24	.08	.24	.29	.17	.13	.15	.16	.16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6	.14	.52	.23	.47	.38	1	.87	.72	.66	.17	.10	.15	.20	.18
a.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43	.07	.57	.29	.42	.28	.86	1	.44	.37	.30	.22	.27	.31	.31
b. 은폐노력-행동적	.33	.14	.48	-.03	.36	.27	.63	.37	1	.24	.02	-.02	-.01	.08	.02
c. 은폐노력-언어적	.25	.13	.08	.17	.27	.32	.73	.40	.25	1	-.02	-.05	-.01	-.01	-.01
3. SNS 중독 경향성	.36	.13	.33	.32	.40	.12	.23	.29	.08	.10	1	.91	.94	.89	.88
a. 조절실패 및 일상장애	.27	.09	.26	.24	.29	.05	.14	.20	.08	.01	.86	1	.83	.70	.68
b. 몰입 및 내성	.31	.13	.30	.27	.36	.02	.20	.26	.06	.07	.91	.75	1	.75	.77
c. 부정정서 회피	.33	.06	.31	.28	.37	.24	.26	.28	.13	.14	.79	.49	.60	1	.80
d. 가상세계지향 및 금단	.35	.17	.26	.31	.35	.15	.21	.24	-.03	.18	.83	.56	.69	.69	1
평균	2.77	2.74	3.15	2.30	2.74	2.90	4.30	3.94	5.45	3.85	1.90	1.91	1.97	1.99	1.67
표준편차	.44	.85	.57	.55	.65	.42	.70	.95	.83	.93	.50	.60	.56	.64	.53
평균	2.65	2.65	2.98	2.25	2.50	2.90	4.22	3.90	4.99	4.00	1.78	1.76	1.86	1.80	1.68
표준편차	.45	.78	.61	.59	.66	.45	.74	1.00	1.07	.84	.52	.56	.58	.60	.56

주. 대각선 아래는 여자의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위는 남자의 상관계수이다.

\*  $p < .05$ , \*\*  $p < .01$

## 2. 성별 조절효과 검증

### 1)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

우선 측정 자료의 정규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규성 기준에 대해 Hong, Malik, & Lee(2003)는 왜도는 절대값 2 이내이고 첨도는 절대값 7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정규성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Kline(2010)은 왜도는 절대값 3 이내, 첨도는 절대값 10 이내일 때, 정상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정상성 가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인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PROCE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SNS 중독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3,309)=20.10, p < .01$ ). 내현적 자기애 수준의 1 단위 증가는 .48 단위의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B=.48, t(309)=5.72, p < .01$ ), 내현적 자기애 수준의 변화량은 SNS 중독 경향성의 변화량 중 40.4%를 설명하였다. 즉,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48, t(309)=5.72, p < .01$ ). 반면,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B=.26, t(309)=.80, p > .01$ ). 결론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07, t(309)=-.62, p > .01$ ).

표 8. 성별을 조절변수로 한 내현적 자기애의 주효과 검증 (N=313)

변인	B	SE	t
내현적 자기애	.48**	.08	5.72
성별	.26	.33	.80
상호작용항	-.07	.12	-.62

$R^2=.16$ ,  $F=20.10$ , \*\* $p<.01$

주. B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3. 매개효과 검증

1)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 검증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SNS 중독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310)=34.43$ ,  $p<.01$ ).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수준의 1 단위 증가는 .09 단위의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고 ( $B=.09$ ,  $t(310)=2.98$ ,  $p<.01$ ),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내현적 자기애 수준의 1 단위 증가는 .38 단위의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 $B=.38$ ,  $t(310)=6.01$ ,  $p<.01$ ).

결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84$ ,  $t(1,311)=7.33$ ,  $p<.01$ ),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09$ ,  $t(2,310)=2.98$ ,  $p<.01$ ). 이 때,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통제하여도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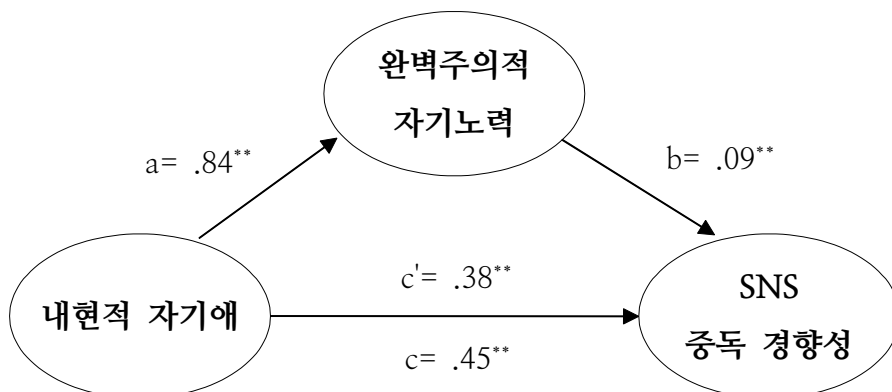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38$ ,  $t(2,310)=6.01$ ,  $p<.01$ ).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부분매개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을 거쳐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은 SNS 중독 경향성 변화량의 42.6%를 설명하였다( $F(2,310)=34.43$ ,  $p<.01$ ).

표 9. 회귀분석에 의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 검증 (N=313)

총효과와 간접효과	B	SE	t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총효과	.45**	.06	7.65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에 미치는 효과	.84**	.11	7.33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효과 (내현적 자기애 통제)	.09**	.03	2.98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통제)	.38**	.06	6.01

\*\* $p<.01$

$R^2=.16$ ,  $F=58.52$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3.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

## 2)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03~.13).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변수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07	.03	.03	.13

##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1) 성별로 조절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 검증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로 조건화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58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우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을 결과 변수로 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성별을 예측 변인으로 추가한 회귀 모형은  $\alpha=.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3,309)=18.07, p<.01$ ). 내현적 자기애 수준의 1 단위 증가는 완벽주의적 자기 노력 수준의 .77 단위의 증가를 가져왔다( $B=.77, t(309)=4.77, p<.01$ ). 반면, 성별에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B=-.45, t(309)=-.71, p>.01$ ). 즉,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지 않았다( $B=.15, t(309)=.63,$

$p > .01$ ).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변화량 중 38%는 내현적 자기에 수준의 변화량에 의하여 설명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SNS 중독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 모형은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4,308) = 17.70, p < .01$ ).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수준의 1 단위 증가는 .10 단위의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고( $B = .10, t(308) = 2.60, p < .01$ ),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내현적 자기에 수준의 1 단위 증가는 .37 단위의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 $B = .37, t(308) = 5.79, p < .01$ ). 반면, 성별에 따라서 SNS 중독 경향성의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B = .16, t(308) = .76, p > .01$ ).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지 않았다( $B = -.02, t(308) = -.45,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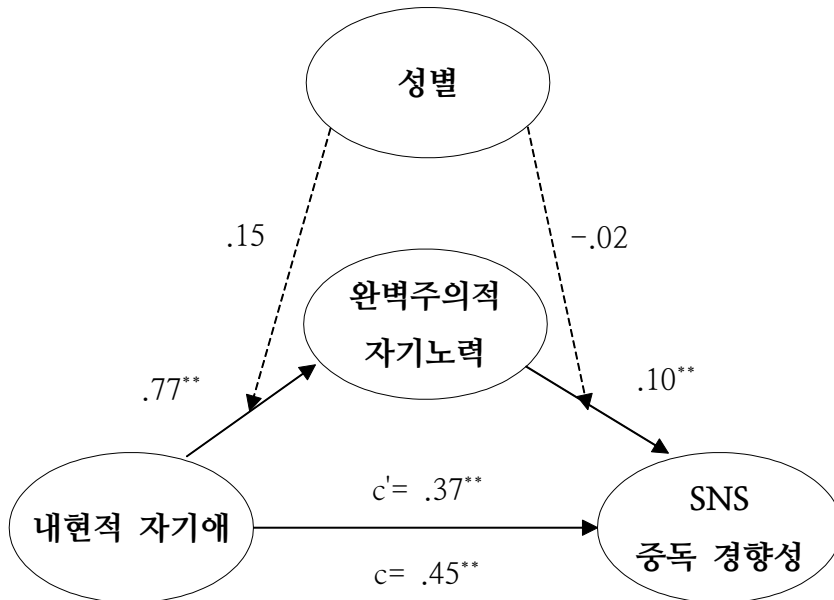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조건화 모형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 효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조건부 매개 효과가 발생하였지만(간접효과 = .08,  $SE = .03$ , 95% CI: .02 ~ .16) 여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간접효과 = .07,  $SE = .04$ , 95% CI: -.01 ~ .16).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남자에게서만 매개역할을 하였다.

표 1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313)

	결과변수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SNS 중독 경향성	
	<i>b</i>	<i>t</i>	<i>b</i>	<i>t</i>
내현적 자기애	.77	4.77**	.37	5.79*
성별	-.45	-.71	.16	.76
상호작용항1(자기애*성별)	.15	.63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10	2.60*
상호작용항2(자기노력*성별)			-.02	-.45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UI	ULCI
남자	.08	.03	.02	.16
여자	.07	.04	-.01	.16

\* $p < .05$ , \*\* $p < .01$



주1. 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주2.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4. 성별로 조절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 모형

2)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지수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므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95% CI:  $-.11 \sim .10$ ). 즉,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매개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12.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변수	지수	Boot SE	LLCI	ULCI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01	.05	.11	.10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 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은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며(Mehdizadeh, 2010; Buffardi & Campbell, 2008; Zhao, Grasmuck & Martin, 2008), SNS 중독 경향성이 내현적 자기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밀접한 관계는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정구철, 문중호, 2015; 조성현, 서경현, 2013, 김선미, 서경현, 2015). 또,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정적 상관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에서의 완벽해지려는 경향성임을 고려한다면,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와 정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이연주, 박준호, 2016; 이문선, 이동훈, 2014; 김성주, 이영순, 2015; 박영주, 정남운, 2013). 본 연구에서 드러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정적 상관 결과 또한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와 일치하였다(안주희, 2015).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긴밀한 관계는 SNS의 중독적 경향을 보이는 대학생이 갖고 있는 역기능적 심리적 도식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 간 관련성을 자기애의 역동적 자

기조절 과정 모델에 적용하여 보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장된 자기상을 비롯한 왜곡된 ‘자기 지식’은 외부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과 같은 ‘대인관계적 자기조절 전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일종의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는 SNS 친구들이 댓글이나 ‘좋아요’ 등의 SNS 기능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개인내적 자기조절 과정’을 통하여 피드백 중 자신에게 긍정적인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SNS 사용 경험을 자신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왜곡하면서 과장된 자기 표상을 스스로 강화하여 더욱 부적절하게 웅대한 자기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SNS 중독적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와 더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하는데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다른 변인과 갖는 관련성을 하위 요인 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완벽주의적 자기 노력’은 SNS 중독 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과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은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 노력’이 결점 없이 완벽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SNS 과다 사용을 예측한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Kuss & Friffiths, 2011; 구철모 외, 2011; 김경은, 2013). 특히 국내의 SNS 문화에서는 해외 유명 휴양지나 값비싼 명품 등 소위 ‘있어보이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고자 하는 ‘있어빌리티’ 현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려는 ‘완벽주의적 자기 노력’과 SNS 중독 경향성의 직접적 관련성을 밝힌 것은 국내의 SNS 과다 사용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불완전함 은폐-노력’이 인터넷의 문제적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Casele, Firavanti, Flett, & Hewitt, 2015)와 상치되는 결과이며, 완벽주의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 중 은폐 성향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백수현, 이영순, 2013)와도 상충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안주희(2015)는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에서의 은폐 경향성이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날 경우 선행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제 3의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이러한 상충된 결과는 자신의 결점을 은폐하고자 하는 특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자신의 결점을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이 일관적으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변인에 따라서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된 결과를 통합하기 위하여는 후속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 외로움(박웅기, 2013), 분노 표출(정구철, 문종호, 2015) 등과 같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중독적 경향성을 확인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거대자기환상과 과민취약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SNS 중독 경향성의 하위 요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와 부정정서 회피에서 여자 대학생의 평균이 남자 대학생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대학생들이 다른 심리적 특성과 SNS 중독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 SNS 중독적 사용 증상의 경중과 자기애 성향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여자 대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과민하고 취약한 성격적 특성과 지나친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단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SNS 사용량을 조절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상담 장면에서 SNS 중독과 관련하여 의뢰된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에 비하여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남녀 대학생이 현상학적으로 같은 SNS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심리적 특성과 기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관계 중독 및 SNS 중독자를 위한 상담적 개입들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와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이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 집단임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상담적 개입에서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치료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녀 대학生の SNS 중독 경향성에 개입하고자 하는 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를 고려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을 거쳐 SNS 중독 경향성을 설명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정도의 효과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부분매개효과는 남자 대학생에게서 유의하였고 여자 대학생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매개 효과의 성별 집단 차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담 장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수준을 낮추어주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매개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에 개입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개입 방향일 수 있음을 밝혔다. 점에서 상담 현장의 상담자들에게 실용적인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는 연구참가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채 SNS 중독 경향성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 성별을 경로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매개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성별에 따라 SNS 중독 수준이나 심리적 특성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성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므로, 제한점들을 밝히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측변인과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한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연구 참가자가 자신에 대하여 회상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들의 특성과 태도가 잘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해보이는 방향으로 긍정 왜곡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결점을 은폐하여 완벽해보이려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설문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 쉬운 응답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이나 관찰법 등을 활용하거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참가자의 일평균 SNS 사용 시간은 69.83분으로 전국의 만 12~59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보고한 일평균 SNS 사용 시간인 66분(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참가자 중 상당수가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체 설문 400부의 21.75%인 87부가 실제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가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청주, 군산에 위치한 5개 대학교 내에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심각한 SNS 중독 경향성

으로 인하여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이 본 연구의 표본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으로 실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켜 진행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내방하는 대학생들에 더욱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구성 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만을 매개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타당화된 척도라 할지라도, 본래의 척도에서 하위 척도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가 입증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변인이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 과시하고자 하는 변인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 지어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밝힌다면 내담자에게 보다 최적화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단일 요인만을 고려하였으며 하위 요인의 부분매개효과만이 유의하게 입증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여러 상황적·심리적 변인들을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SNS 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지혜 (2004). 남녀 중학생의 대인불안과 자기제시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철모, 김희웅, 전유희 (2011). 스마트폰의 탐색적 사용과 충분한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3), 67-91.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김경은 (2013). 자기노출과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이용 형태: 카카오토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재 (2004).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77-695.
- 김다정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민정 (201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 나타나는 나르시시즘 표현 양상에 대한 고찰: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성주, 이영순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99-216.

- 김소연 (2013). 스마트폰 및 SNS사용이 중학생의 소외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09). 공적 자의식, 자기제시 동기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섭, 문종범 (2012). 개인성향이 SNS태도와 사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3(3), 281-301.
- 김정민, 최은서 (2010).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1), 121-135.
- 김종현 (2015). 자기과시성향이 정보공유행위와 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 (2014).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지향성과 SNS 몰입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11-26.
- 김효주 (2010). 자기애 성향자들의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 38-63.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지나친 자기사랑의 함정. 학지사.
- 나하영, 신태섭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95-717.
- 박미란, 이지연 (2008). 상담일반: 자기은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547-1565.
- 박소현 (201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관계욕구 불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순, 최승원 (2014). 자기제시 기대가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127-127.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65-474.

- 박영주, 정남운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1), 55-74.
-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기 (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3(4), 305-342.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연 상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 백수현, 이영순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385-400.
- 손정선 (2010). 내현적 자기애와 인지적 왜곡,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미경 (2016).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심리·사회적 변인과 온라인 상호작용 선호 경향성 및 SNS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호경, 신지명, 이호 (201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의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2(1), 137-156.
- 안주희 (20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공선, 강재원 (2011). 이동형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충족, 의존, 그리고 문제적 이용: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8(4), 89-127.
- 유하나, 박기환 (2013). 청소년의 자기제시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 85-112.
- 윤명숙, 박완경 (201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SNS 중독성향 연구. *정신*

- 보건과 사회사업, 42(3), 208-236.
- 윤정혜 (2009). 자기에 측정도구(KISP) 구조모형 검증: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51-172.
- 이경민 (2014).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정, 정남운 (2007).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 이동귀, 서해나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향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의 특성비교. 상담학연구, 11(1), 91-110
- 이문선, 이동훈 (2014).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73-992.
- 이상호 (201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중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연구 : 한국형 SNS 중독지수(KSAI)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1), 255-265.
- 이새싹 (2016).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철, 최태영, 우정민, 김지현, 서민재, 곽상규, 이종훈 (2014).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과 우울, 사회 불안의 상관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20(3), 212-218.
- 이연주, 박준호 (2016).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신체 증상의 관계: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333-356.
- 이은주 (2011).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트위터. 언론정보연구, 48(1), 29-58.
- 이예지 (2017). 병리적 자기에의 웅대성 취약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안창일 (2005). 자기에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1), 19-36.
- 장효진 (2012). 병리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구철, 문종호.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46-156.
- 정다영, 정남운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초기 작업동맹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585-605
- 정병완, 홍혜영 (2015). 내현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감과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83-20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제현채, 김정규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477-489.
- 조다현 (2014). 병리적 자기애, 정서 표현성, 친구 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현, 서경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최보은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자기애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85-202.

-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국내 SNS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KISA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 하정희 (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11-1230.
- 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1(4), 1375-1392.
- 하지현, 전미유 (2012). 인터넷 중독의 임상양상. *한국중독정신의학회*, 16(1), 3-10.
- 한가희 (2016). 대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지은, 강민주 (2013).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감과 공격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3), 33-65.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DSM-IV)*.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SM-III)*.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ManMag.
- Andreassen, C. S. (2015). Online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 comprehensive review. *Current Addiction Reports*, 2, 175-184.
- Bergman, S. M., Fearington, M. E., Davenport, S. W., & Bergman, J. Z. (2011). Millennials,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hat narcissists

- do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w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706–711.
- Besser, A., Flett, G. L., & Hewitt, P. L. (2010).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Trait Perfectionism i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8), 2121–2154.
- Bruch, H. (1973). Eating disorders: Obesity, anorexia nervosa, and the person within. In H. Bruch (Ed.), *Hunger awareness and individuation eating disorders* (pp. 44 – 65). New York: Basic Books.
-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1314.
- Casale, S., Fioravanti, G., Flett, G. L., & Hewitt, P. L. (2015). Self-presentation styles and Problematic use of Internet communicative services: The role of the concerns over behavioral displays of imperfe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6, 187–192.
- Collins, D. R., & Stukas, A. A. (2008). Narcissism and self-present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accountability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629–1634.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D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 – 74). London: Jason Aronson Inc.
- Echeburúa, E., & de Corral, P. (2009). Addiction to new technologies and to online social networking in young people: A new challenge. *Adicciones*, 22, 91–95.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Flett, G. L., Endler, N. S., Tassone, C., & Hewitt, P. L. (1994). Perfectionism and components of state and trait anxiety. *Current Psychology*, 13(4), 326–350.
- Freud, S. (1914). On narcissism: A introduction. *Standard Edition*, 14(67), 102.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 Gregg, A. P., & Sedikides, C. (2010). Narcissistic fragility: Rethinking its links to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9(2), 142–161.
- Griffiths, M. (2005).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 191–197.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B. S., Habke, M., Parkin, M.,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R. W., McMurtry, distnter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303–1325.
- Hewitt, P. L., Flynn, C. A., Mikhail, S., Sherry, S. B., & Flett, G. I. (2007). *Evaluation of brief psychodynamic/interpersonal group therapy for perfectionism*. Manuscript in preparation.
- Hofmann, W., Vohs, K. D., & Baumeister, R. F. (2012). What people desire, feel conflicted about, and try to resist in everyday life. *Psychological Science*, 23, 582–588.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307-321.
- Jones, S. C., & Tager, R. (1972). Exposure to others, need for social approval, and reactions to agreement and disagreement from oth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1), 111-120.
- Jordan, C. H., Spencer, S. J., Zanna, M. P., Hoshino-Browne, E., & Correll, J. (2003). Secure and defensive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96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에 출판).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Kwon, O. & Wen, Y.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c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2), 254-463.
- Lasch, C. (1979). *The culture of marcissism*. New York: Norton.
- Leary, M. R., & Allen, A. B. (2011). Self-presentational persona: Simultaneous management of multiple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1033–1049.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4.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94–112.
- Leary, M. R.,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3), 308–321.
- McWilliams, N. (2008). 정신분석적 진단 성격구조의 이해.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정남운, 이기련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4년도에 출판).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 Meyer, B., & Pilkonis, P. A. (2011). Attachment theory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reatments*, 434–444.
- Millon, T.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New York: Brunner: Mazel.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52–863.
- Muslin, H. L. (1985). Heinz Kohut: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Beyond Freud*, *203*, 229.
-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610–625.
- Odell, P. M., Korgen, K. O., Schumacher, P., & Delucchi, M. (2000). Internet use among female and male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3*(5), 855–862.
- Ong, E. Y., Ang, R.P., Ho, J. C., Lim, J. C., Coh, D. H., Lee, C. S., & Chuam A. Y. (2011). Narcissism, extraversion and adolescents's self-presentaion on Faceboo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80–185.
- Pliner, P., & Chaiken, S. (1990). Eating, social motives, and self-presentation in women and me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3), 240–254.
- Preacher, K. J., & Hayes, A. F. (2007). Ass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hodewalt, F., & Sorrow, D. L. (2003). *Interpersonal self-regulation: Lessons from the study of narcissism*.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2). Interpersonal processes involving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1), 133-168.
- Sherry, S. B., Hewitt, P. L., Besser, A., Flett, G. L., & Klein, C. (2006). Machiavellianism,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4), 829-839.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y, D. L., & Hall, P. A. (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3), 477-49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racy, J. L., Cheng, J. T.,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9). Authentic and hubristic pride: The affective core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Self and identity*, *8*(2-3), 196-213.
- Tracy, J. L., Cheng, J. T., Martens, J. P., & Robins, R. W. (2011). The emotional dynamics of narcissism.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Hoboken: Wiley.
- Weiser, E. B. (2000). Gender differences in Internet use patterns and Internet application preferences: A two-sample comparis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3*(2), 167-17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7, 19–31.
- Zhao, S. Y., Gramsmuck, S., & Martin, J. (2008). Identity construction on Facebook: Digital empowerment in anchored relationships. *Computer & Human Behavior*, 24, 1816~1836.

## ABSTRACT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Proneness among undergraduat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Gender Difference

Cho, Jun hee

Department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difference through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Covert Narcissism Scale (CN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were administered to 400 undergraduat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i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gender differe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slope analysis,

moderation effect of gender difference was not found. Fourth, a mediating model verified that perfectionistic self-promotion, component factor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ifth,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proneness through perfectionistic self-promotion were insignificantly moderated by gender differenc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covert narcissism,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NS addiction proneness, moderated mediating effect

## 부 록

부록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

부록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

부록 3.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 내현적 자기에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대체로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이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2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3	나는 내 문제를 늘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1	2	3	4	5	6	7
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끄찍할 것이다.	1	2	3	4	5	6	7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들을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1	2	3	4	5	6	7
7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1	2	3	4	5	6	7
8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9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1	2	3	4	5	6	7
10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6	7

11	내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6	7
13	내가 맡은 일이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14	나는 내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5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1	2	3	4	5	6	7
1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17	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이 무척 싫다.	1	2	3	4	5	6	7
18	나는 언제나 내 행동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1	2	3	4	5	6	7
19	내가 나의 일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완벽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7

※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1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2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1	2	3	4
3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1	2	3	4
4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 시간 또는 업무 시간에 잔다.	1	2	3	4
5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1	2	3	4
6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증이 난다.	1	2	3	4
7	SNS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8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1	2	3	4
9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1	2	3	4
10	SNS 사용 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1	2	3	4
11	초조함 또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1	2	3	4

12	SNS를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	2	3	4
13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는다.	1	2	3	4
14	SNS 때문에 취미, 여가생활, 운동을 덜 중요시한다.	1	2	3	4
15	SNS에서 타인의 댓글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한다.	1	2	3	4
16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한다.	1	2	3	4
17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	2	3	4
18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다.	1	2	3	4
19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SNS를 한다.	1	2	3	4
20	“그만 해야지”하면서도 번번이 SNS를 하게 된다.	1	2	3	4
21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1	2	3	4
22	SNS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다.	1	2	3	4
23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SNS를 한다.	1	2	3	4
24	SNS로 인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1	2	3	4